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4월 16일

제1944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7-28>



<성 토마스의 의심>, 벤자민 웨스트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가해)

제 1 독 서 사도 2,42-47 |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화 답 송 시편 118(117)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 서 1베드 1,3-9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 음 요한 20,19-31 |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서 오셨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 자비'에 감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었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 신심

말과 행동과 기도로써 자비 실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전하는 하느님의 자비 신심의 핵심은 믿음과 실천에 있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세상에 일깨우고,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신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드리는 의탁이 필요하다. 또 말과 행동과 기도로써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전하기 위해 성녀가 받은 메시지들에는 하느님의 자비 상본을 만들고, 하느님의 자비 축일을 지내며, 오후 3시에 하느님의 자비 기도 시간을 갖고,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널리 전하라는 것 등이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1931년 2월 22일 환시 중에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수녀가 본 당신 모습 그대로 상본을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을 넣도록 하셨다. 그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표시가 있고, 심장으로부터는 붉은 빛과 옅은 빛의 두 광채가 발산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이 두 광채는 성체성사(붉은 광채)와 교회(옅은 광채)를 상징한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은 요한이 전하는 부활 발현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 (20,11-18 참조) 이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두려움에 싸여 문을 잠가 놓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인사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 인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에 걸쳐 되풀이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이 파견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 사건을 의심하는 토마스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고자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 인사는 당신의 죽음에 앞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의(14,27-28 참조) 실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시기로 약속된 평화의 선물이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죽음을 이겨 낸 승리의 평화로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의심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16,33 참조). 여기에서 평화 인사는 가정이나 기원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 선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 인사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정진만 안젤로 신부〉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모든 전쟁을 끝내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님 부활 대축일 10만여 명의 신자들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가운데 ‘로마와 온 세상에 보내는 부활 메시지와 교황 강복’(Urbi et Orbi)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의 선물을 간청하고 포로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길 기도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포로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청하는 기도, 하느님께서 러시아인들에게 부활의 빛을 내려주시길 청하는 기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화 호소, 시리아-튀르키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향한 친밀함, 아이티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고통받는 미얀마와 로힝야족을 위한 정의의 호소, 서아프리카의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 니카라과와 에리트레아 등 신앙의 자유가 금지된 지역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향한 위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여 명의 신자들 앞에서 ‘로마와 온 세상에 보내는 부활 메시지와 교황 강복’(Urbi et Orbi)을 통해 이 같이 기도했다. 강복의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교황은 “암흑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길 하느님께 간청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결정적인 건너감,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은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친교로 건너가는 여정이 완성됐습니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주시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더 이상 죽음의 장벽에 가로 막히지 않으니 교회와 온 세상은 기뻐합니다.”

서둘러 평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교황은 “우리의 희망이 착각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부활 이후 희망으로 가득한 인류의 여정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류는 기쁜 소식을 알리러 서둘러 달려간 여인들과 무덤으로 서둘러 달려간 두 제자처럼 “서둘러 길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민족과 국가 간의 신뢰, 곧 상호신뢰의

여정으로 서둘러 나아갑니다. (…) 분쟁과 분열을 극복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마음을 열도록 서둘러 나아갑니다. 평화와 형제애의 길로 서둘러 나아갑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하지만 이 여정에서 그러한 서두름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 그 장애물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유혈사태와 분쟁, 동족 분열, 불의와 폭력이다. 교황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이 장애물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기도했다.

“사랑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러시아인들에게 부활의 빛을 밝게 비추소서.”

교황은 이어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을 위한 위로를 주님께 청하며 기도했다. “전쟁 포로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전히 평화를 소망하는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모든 전쟁이 종식되도록 전 세계 국제사회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교황은 이 같은 말로 인사를 전하며 “로마와 온 세상에” 전하는 교황 강복을 끝맺었다. 교황은 부활하시어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인사를 세 번 반복해서 외쳤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Salvatore Cernuzio / 번역 이재협 신부

1 하나님의 자비 주일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리며 자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성령 묵상 기도회에서 찬미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자비 주일을 지내고자 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4월 16일(일) 오후 3:15 (성당)
- 문의: 박 수산나 (703) 909-2980

2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4월 16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4월 16일(일) 오전 11:30 (A-1,2,3,4)

4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4월 16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사도 임원 회의

- 일시: 4월 21일(금) 오후 8시 (A-1,2)

6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직 수여식 미사

- 일시: 4월 21일(금) 오후 4시
- 장소: Immaculate Conception Chapel, Mount St. Mary's Seminary
- 직 수여식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다니엘 신학생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7 주교님과 함께하는 Marian Conference 미사

- 일시: 4월 29일(토) 오전 9시
- 장소: Saint Bernadette Catholic Church (Springfield)
- 일정: 9시 - 마이클 주교님과 함께하는 미사 10시 30분 - 특강 "마리아는 서둘러 갔다" (브로글리오 대주교)
-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성 정하상 성인 성상 축복식

- Fairfax Memorial Park의 성 정하상 성인 성상 설치가 마무리되어 성상 축복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4월 22일(토) 오전 10시, Fairfax Memorial Park
- 일정: 10시 - 무덤 축복식(묘지 앞에 계시면 됩니다.) 10시 30분 - 연도 11시 - 미사 후 성상 축복식 (미사 봉헌은 사무실에 해주세요.)

9 Fairfax Memorial Park 묘지 할인 안내

- 4월 1일부터 30일까지 Fairfax Memorial Park 묘지 구입 시 St Paul Chung Member 임을 밝히면 5% 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Bash 2023 (주일학교 CCD)

- 알링턴 교구 Burbidge 주교님이 교구 내 6 - 8학년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 일시: 4월 22일(토)
- 장소: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 등록 기간: 4월 9일(일) - 4월 16일(일) 주일학교 교무실

11 4월 23일(일)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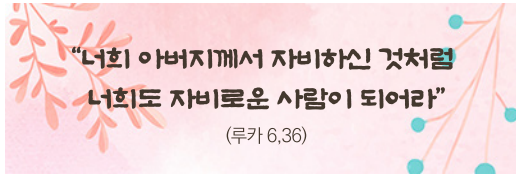
- 단체장 회의 / 루카회 (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50대 남녀교우) / KoC 월례 회의

12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배 골프 대회

- 일시: 5월 21일(일) 오후 1시, Penderbrook Golf Club
- 목적: 본당 구역 및 신자 상호간의 친교와 일치를 위해. 이익금은 선교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합니다.

13 ME 주말부부

- 일시: 5월 27일(토) 오후 7시 - 29일(월) 오후 5시까지
- 장소: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뉴욕)
- 접수: 4월 16일(일) - 5월 7일(일) 친교실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김진호 다니엘 (703) 300-5420



공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당 내 봉사자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 봉사자들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봉사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세요.
- 성당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 성당 관리 및 청소에 함께해 주세요. - 행사 후에 반드시 뒷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소등 확인.
- 주차 질서를 지켜 주세요. - 주차 시 라인을 지켜 주세요. - 금지구역 주차 금지 - 주차 시 문콕에 주의해 주세요. - 주차 시 사고가 나면 메모를 남기거나 사무실에 알려 주세요.

제84차
예비신자 모집 안내

- * 입교식: 5월 7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 등록: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8시, 10시 미사 후)
- * 문의: 김영희 모니카 (571) 338-8844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비자 모집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4월 9일(주님 부활 대축일)

봉헌금	\$ 25,224.00
교무금	\$ 6,390.00
교무금(신용카드)	\$ 4,250.00
감사 헌금	\$ 690.00
2차 헌금	\$ 2,781.00
온라인 봉헌	\$ 2,205.00
합계	\$ 41,54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4월 20일(목) 오후 5:00 - 6:00
4월 21일(금) 저녁 8:00 - 9:00
4월 23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 특강: **빠다킹 신부의 맘고생크림 케이크** (제4회)
'하느님과의 약속'
- 조명연 마태오 신부

| 교황님의 4월 기도 지향 |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국가와 시민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